

# 중국 유학생의 가족건강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Influence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Family Strengths on Social Networking Services Addiction  
Tendenc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강우정\*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박정윤\*\*

Dept. of Psychology, Chung Ang University  
Master's course JIANG, YUJING  
Dept. of Psychology, Chung Ang University  
Professor Park, Jeungyun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초록〉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의 가족건강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 3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version 28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 4.3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유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을 살펴보면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 유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은 SNS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성별, 가족과의 연락 빈도, SNS 하루 평균 이용 시간, 가족건강성 중 질적 유대감, 자아탄력성 중 통제성이 유학생들의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건강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 완전 매개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을 예방하는 변인으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중국 유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SNS 중독경향성, 중국 유학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s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SNS) addiction tendency.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of 349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in Korea and analyzed using the SPSS Statistics version 28 program and SPSS Process Macro 4.3.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exhibited higher-than-average levels of SNS addiction tendency, family strengths, and ego resilience. Second, the SNS addiction tendency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had a significant positive

\*주저자: 강우정(namecorrine@163.com), <https://orcid.org/0009-0004-4576-9777>

\*\*교신저자: 박정윤(pjy4838@cau.ac.kr), <https://orcid.org/0000-0002-0755-9697>

correlation with the average time spend on SNS per day, while demonstrating a negative correlation with family strengths and ego resilience. Third,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gender, frequency of contact with family, average time spend on SNS per day, qualitative bond as a sub variable of family strengths, and control as a sub variables of ego resilience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SNS addiction tendency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Fourth, the study confirmed the complete mediation of ego resilience in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s on SNS addiction tendenc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pecific directions for counseling interventions aimed at mitigating SNS addiction tendencies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Key words:** Family strengths, Ego resilience, SNS addiction tendency,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 I. 서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두 나라 정치,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의 상호교류를 확대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재한 유학생 수는 2003년 12,314명부터 2022년 166,89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이루고 있다. 그중 2022년 중국 유학생의 비율은 67,439명 40.4%로 국내 유학생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22). 한국에서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중국 유학생의 증가와 함께 유학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도 드러난다. 주로 타국 문화를 적응하는 데서 경험하는 어려움, 학비나 숙식 문제를 포함한 생활비의 부족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 언어 장벽과 수업 진행 방식의 차이가 주는 학업 적응 문제(김영경, 2009; 주학, 2022), 대인관계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Park(2018), 김종원 · 김은정, 2019 ‘재인용’; 조혁수 · 전경태, 2009). 유학생들은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심리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학생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SNS를 사용함으로써 학교생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탐색하고(김시연, 2020; 이하정, 2020), 한국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고 문화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장문광, 2013). 또한 SNS 활용은 유학 생활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가족과 연락할 수 있어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진영, 2003; 왕매 · 나미수, 2015). 그리고 유학생들은 자국의 SNS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친구나 다른 유학생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한국 SNS도 적극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효봉 · 서창갑, 2011). 따라서 SNS의 사용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유학생의 환경 적응 능력도 높일 수 있어 발달과업 달성을 통한 행복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Forbush & Foucault-Welles, 2016; Wang et al., 2014).

그러나 SNS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인이 SNS에 할애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오프

라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감소하면서 실제 인간관계의 질이 점차 악화하여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킨다(Stavrova & Derissen, 2021). 뿐만 아니라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이에 대한 내성이 생겨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고 우울증, 집중력 저하와 같은 심리적 문제, 자기효능감 감소, 학업 수행의 어려움, 더 나아가 SNS 중독에 빠지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박재진 · 황성욱 · 박홍원, 2013; 오윤경, 2012; 우공선, 2011; 정지은, 2017; 황윤지 · 조수현, 2020; Kirschner & Karpinski, 2010). 이러한 역기능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SNS의 과도한 사용은 유학생의 유학 생활에 위협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유학생들의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다양한데, 최근 가족 관련 변인과 미디어 과도한 사용 간의 관계성이 주목받기 시작했고(김진아, 2018; 박순아 · 박근우, 2017; 신영아, 2019; He & Q, 2022; Marzilli et al., 2020; Putri & Khairunnisa, 2019; Shi, Wang & Zou, 2017; 채莹, 2021), 그중에 가족건강성이 강조되고 있다. 가족건강성은 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발달을 뜻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사소통,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원만하고 집단으로서 가치체계를 공유하며, 친족과 사회체제도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루는 생활체계를 말한다(유영주, 2004). 건강한 가족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몰입 현상이 적게 나타났다(권수경 · 민윤희 · 장성화, 2015; 주애자 · 황혜원, 2019). 또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해서 인터넷 과몰입의 가능성이 작다고 밝혀지고 있다(장성화 · 박영진, 2013). 반대로 가족건강성이 낮은 가정에서 자란 대학생일수록 자존감을 낮고 정서 및 인지조절과 관련한 자기통제력이 낮아 가상세계에서 자신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생기고 SNS 중독이 더 심해진다고 밝혀졌다(김진아, 2018; 신영아, 2019).

지금까지 가족건강성과 SNS 관련 연구는 국내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흡하다. 유학생의 다른 환경적 변인에서도 국내 대학생들과 동일한 연구결과를 도출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지지 하위변인 중의 부모

지지가 중국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촉진할 수 있고, 가족 기능이 SNS 중독을 예방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Jin Ailing · 오인수, 2017; 刘莹, 2021). 이는 가족이 중국 유학생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중국 유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가족건강성이 SNS 중독경향성을 야기하는 과정에서 매개하는 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가치체계의 공유,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좋은 가족 분위기가 자아탄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박민정, 2016; 박정애, 2015; 성미화, 2017; 장성연, 2013).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외부환경 혹은 외적·내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이다(박순영, 2013). 이는 개인이 갖는 긍정적 적응 변인으로써 대학이라는 환경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부터 대학생을 보호하는데, 대학생이 성공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의 내적 자원을 설명하는 유력한 변인이다(최아람·김용범·김영호, 2019; 황혜지, 2017). 자아탄력성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 스트레스가 적으며, 대인관계 적응도 잘하고(김주연, 2007; 박아름, 2022),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도 크지 않다고 밝혀졌다(홍희정, 2017; Hjemdal et al., 2011). 이는 SNS 중독경향성을 예방하는 개인 내적 보호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문제행동을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세계에 빠지지 않고 SNS 중독경향성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김영숙, 2017; Li et al., 2010; Lim, 2017).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은 가족 관련 변인과 개인의 문제행동이나 적응 불량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박애경, 2017; 조윤미, 2013; 刘莹, 2021). 이에 따라 자아탄력성이 가족건강성과 SNS 중독경향성이나 중독 예방에 중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밝힌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는 점에서 변인 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을 예방하는 보호변인에 초점을 두고 가족건강성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밝혀냄으로써 중국 유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을 예방시키는 개입의 근거를 제시하고 나아가 유학생들의 SNS 중독경향성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 개입할 요소들을 밝힘으로써 유학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유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SNS 중독경향성의 전반적 경향성은 어떠한가?

둘째, 중국 유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중국 유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탄력성에 의해 매개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SNS 중독경향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

중독이란 특정 물질이나 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함으로써 특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박용기, 2013). 2013년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DSM-5에서는 인터넷 게임 장애에 관련된 문장이 등재됨에 따라 매체를 사용하는 행위 중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Kuss & Griffiths(2011)는 SNS 중독을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인 사이버 관계 중독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SNS 중독은 개인이 SNS가 사회활동, 학업, 업무, 대인관계,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계없이 개인이 지나치게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Andreassen et al., 2012).

그러나 SNS 중독이라는 용어가 SNS의 사용에 대한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일관된 이론적인 진단 준거를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다(Kuss & Griffiths, 2011).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SNS에 과몰입하고 과도한 시간 투자를 하거나, 이에 집착하여 금단 증상이 나타나며, 일상생활에 저해를 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SNS 중독' 대신에 'SNS 중독경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성요안나·현면호, 2016; 오윤경, 2012; 정소영, 2014; Schou Andreassen & Pallesen,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SNS 중독경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2. SNS 중독경향성에 관한 선행연구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SNS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2)의 SNS 이용 현황에 따르면 SNS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 기준 2019년 47.7%, 2020년 52.4%, 2021년 55.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SNS 이용률의 증가는 SNS 중독에 대한 경향성을 함께 암시하고 있다. SNS 사용자의 SNS 중독경향성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안중근(2021)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SNS 중독 경향성 연구에서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인 중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이 가장 높았다. 현태자(202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은 보통 수준이었고, 여성보다 남성의 SNS 중독경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연구자들이 SNS 중독경향성을 예방하기 위해 주로 SNS 중독경향성을 발생시키는 기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불안정 성인애착을 가진 대학생들은 정서조절곤란, 사회적 상황의 불안감, 대인관계 문제 등 문제

가 더욱 심하기에 SNS이라는 가상세계에 대한 몰입도가 높고 SNS 중독경향성이 크다고 하였다(강상휘, 2019; 신가영, 2019). 또한 자기애적 특성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더 민감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지만 실제로 감정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다. 그들은 가상공간에서 자유롭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는 원인에서 SNS 중독경향성이 높았다(민수인, 2022; 황유나, 2020). 남현지(2022)의 연구에서 아동기 외상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불안정한 애착을 더 쉽게 형성하고 현실 중의 대인 관계에서 소외감을 더 느껴 SNS 중독경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언타오(2021)는 중국 유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SNS 사용 빈도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종합해보면 현시점에서 SNS 중독경향성을 예방하는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NS 중독경향성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다양하지만 SNS 중독경향성과 관련된 부정적 변인이 많이 제시되었다. 또한 선행연구는 주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SNS 중독경향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중국 유학생은 자국 친족과의 연락, 학습 정보 획득,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방면에서 SNS를 많이 사용한다. SNS에 더 집착하고 몰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 유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을 예방하는 자원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3. SNS 중독경향성 관련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

SNS 중독경향성의 선행연구에서 관련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다수인 데 비해 SNS 중독경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변인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중국 유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변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국내 학생 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고, 중국 유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본 연구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먼저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연령, 성별 등이 제시되고 있다. 김지현(2015)의 연구에서 연령은 낮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차소연(2023)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SNS 중독경향성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고 일관성이 낮게 나타나서 본 연구에서 해당 변인을 포함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SNS 중독경향성의 차이가 있다(전준희, 2023; 조선숙, 2020). 구체적으로 여성일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강홍찬(2015)과 정승록(2020)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SNS 중독경향성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 학력과 SNS 중독경향성의 상관관계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생의 학

년에 따라 SNS 중독경향의 차이가 있지만 분석하였는데(배찬욱, 2020; 전준희, 2023), 본 연구에서 두 변인의 관계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또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를 통해 SNS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김지현, 2015; 한미경, 2023; 홍신영, 2015), 현존 중국 유학생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한국 체류 기간과 가족과의 연락 빈도는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를 고찰하지 않는다. 중국 유학생이 인맥 형성이나 친척을 그리워할수록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져 SNS를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효봉·서창갑, 2011; 장민위, 2015), 한국 체류 기간과 가족과의 연락 빈도가 중국 유학생의 SNS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이러한 두 변인을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SNS 중독경향성과 관련해서 가족환경적 변인과 개인심리적 변인으로 분류해서 제시해 볼 수 있다. 가족과 관련 변인은 가족지지,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가족기능, 가족건강성 등이 있다(권여은·이지민, 2017; 김지현, 2015; 이승화·장여옥, 2021; 정수연, 2014; 정승록, 2020; 홍구표·전혜성, 2017; 채莹, 2021). 개인심리적 변인은 성인애착, 자기애성향, 소외에 대한 두려움, 자아탄력성 등을 포함하였다(강상휘, 2019; 고보숙·박정환, 2018; 민수인, 2022; 배찬욱, 2020; 신가영, 2019; 임채식, 2017).

먼저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과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족지지가 많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낮아지고(정승록, 2020; 홍구표·전혜성, 2017),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낮아진다고 밝혀졌다(김지현, 2015; 정승록, 2020). 또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 적극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여은·이지민, 2017; 채莹, 2021). 선행연구들은 가족관계의 전체적 측면보다는 기능, 응집, 의사소통 등 특정 측면만을 고려하며 SNS 중독과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가족 전체의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인 가족건강성이 SNS 중독과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의 긍정적 요소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검토하며 유학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변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가족건강성 변인을 포함하고자 한다.

한편,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심리적 변인 중 자아탄력성은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보호변인으로 언급되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이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을 부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김종임, 2019; 오원욱·신현정, 2016; Robertson, Yan & Rapoza, 2018; Wisniewski et al., 2015) SNS 중독경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SNS 중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김영숙, 2017), 고보숙과 박정환(2018), 임채식(2017)의 연구에서 SNS 중독경향성 있는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자아탄력성이 낮다고 밝혀 자아탄력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SNS 몰입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는 대학생들이 SNS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SNS에 중독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채莹, 2021).

선행연구에 의해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심리적 변인인 자아탄력성은 환경 및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는데(윤지영, 2016), 개인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확인하였다(박정혜, 2020; 성미화, 2017; 장성연, 2013). 또한 가족관련 변인과 인터넷 과몰입이나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박애경, 2017; 채莹, 2021).

이에 따라 중국 유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변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서 이를 대상으로 SNS 중독경향성 관련 변인의 탐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자원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제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23년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총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중국 전문적인 온라인 조사 플랫폼 설문별을 이용하였고 총 383명 대상을 조사하였다. 수거된 383부의 설문지 중에서 설문에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답안이 누락되어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34부를 제외한 총 349부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사용되었다.

#### 2. 측정도구

##### 1) 인구사회학적 변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 학력, 한국 체류 기간, 가족과의 연락 빈도, SNS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을 포함하였다.

##### 2) SNS 중독경향성

연구대상자의 SNS 중독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정소영(2014)에 의해 개발된 'SNS 중독경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몰입 및 내성, 부정정서 회피,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Cronbach  $\alpha$  값은 .903이다. 하위변인별 Cronbach  $\alpha$  값은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809, 몰입 및 내성 .774, 부정정서 회피 .725,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661로 나타났다.

##### 3) 가족건강성

연구대상자의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영주(2014)에 의해 개발된 '가족건강성 척도 KFSS-II'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2개의 문항, 5개의 하위변인으로 구분되었으며, 문항의 구성은 상호존중과 수용(5문항), 질적 유대감(4문항), 경제적 안정과 협력(3문항), 가족문화와 사회참여(3문항), 가족탄력성(7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Cronbach  $\alpha$  값은 .960이다. 하위변인별 Cronbach  $\alpha$  값은 상호존중과 수용 .885, 질적 유대감 .834, 경제적 안정과 협력 .762,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719, 가족탄력성 .918로 나타났다.

##### 4) 자아탄력성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우열, 김민규와 김주환(2009)에 의해 개발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으로 9문항씩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제성은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총 3개 하위변인으로 구성되며, 긍정성은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총 3개 하위변인, 사회성은 관계성, 커뮤니케이션능력, 공감능력 총 3개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Cronbach  $\alpha$  .942이다. 하위변인별 Cronbach  $\alpha$  값은 통제성 .874, 긍정성 .862, 사회성 .841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 구성은 <표 1>와 같다.

〈표 1〉 측정 도구 구성

측정도구	하위영역	하위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alpha$
SNS 중독경향성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4, 10, 14, 17, 20, 22, 24	7	0.809
		몰입 및 내성	1, 5, 9, 15, 18, 21, 23	7	0.774
		부정정서의 회피	3, 8, 11, 16, 19	5	0.725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급단	2, 6, 7, 12, 13	5	0.661
		전체		24	0.903
가족건강성		상호존중과 수용	1, 2, 3, 4, 6	5	0.885
		질적 유대감	7, 8, 18, 19	4	0.834
		경제적 안정과 협력	5, 13, 21	3	0.762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10, 17, 22	3	0.719
		가족탄력성	9, 11, 12, 14, 15, 16, 20	7	0.918
	전체		22	0.960	
자아탄력성	통제성	원인분석력	1, 2, 3	3	0.874
		감정통제력	4, 5, 6	3	
		충동통제력	7, 8, 9	3	
	긍정성	감사하기	10, 11, 12	3	0.862
		생활만족도	13, 14, 15	3	
		낙관성	16, 17, 18	3	
	사회성	관계성	19, 20, 21	3	0.841
		커뮤니케이션 능력	22, 23, 24	3	
		공감 능력	25, 26, 27	3	
		전체		27	

\*역채점 문항임

###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자료는 SPSS Statistics version 28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 4.3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판단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주요 변인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가족건강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가 제시한 Process Macro 4.3를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5,000개를 재추출하고 95% 신뢰구간에서 검증하였다.

###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80.2%, 남성 19.8%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평균연령은 25.09세로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0세 이상-29세가 8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30세 이상(11.2%), 20세 이하(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학력 분포는 학부 41.0%, 대학원 59.0%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한국 체류 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40.4%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5년 미만'이 21.2%, '5년 이상' 19.5%, '1년 미만' 18.9의 순이었다. 가족과의 연락 빈도는 '매일'과 '주 2-3회'가 다 37.0%, '주 1회 혹은 그 이하' 26.1%이었다. 응답자의 SNS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4시간 이상'이 3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9.8%,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15.8%, '1시간 이상-2시간 미만'과 '1시간 미만' 각각 15.5%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49)

변인	집단	빈도(n)	비율(%)
성별	남성	69	19.8
	여성	280	80.2
연령	20세 이하	5	1.4
	20세 이상-29세 이하	305	87.4
	30세 이상	39	11.2
	평균연령(M(SD), 세)	25.09(3.66)	
학력	대학생	143	41.0
	대학원생	206	59.0
한국 체류 기간	1년 미만	66	18.9
	1년 이상-3년 미만	141	40.4
	3년 이상-5년 미만	74	21.2
	5년 이상	68	19.5
가족과의 연락 빈도	매일	129	37.0
	주 2회-3회	129	37.0
	주 1회 혹은 그 이하	67	26.1
SNS 하루 평균 이용 시간	1시간 미만	54	15.5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54	15.5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69	19.8
	3시간 미만-4시간 이상	55	15.8
	4시간 이상	117	33.5

## IV. 연구결과

### 1. 중국 유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의 전반적인 경향성

조사대상자의 SNS 중독경향성,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에 대해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변인들의 왜도의 절대값이 2보다 적고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적어 정상 분포의 가정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첫째, 조사대상자의 SNS 중독경향성 평균은 2.60점(SD=0.53)으로 4점의 중간점수보다 높았는데 조사대상자가 SNS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SNS 중독의 경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위변인 ‘부정정서의 회피’의 평균은 2.64점(SD=0.66)으로 중간값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우울감, 외로움,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정서를 줄이기 위해 SNS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몰입 및 내성’의 평균은 2.63점(SD=0.62)이었는데, 조사대상자가 SNS에 지나치게 몰입함으로써 충동과 생각을 억제하지 못해 내성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의 평균이 2.61

점(SD=0.62)으로 중간점수보다 높았는데 조사대상자가 가상세계에서 자기 가치를 찾는 경향이 강할수록 SNS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금단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의 평균은 2.53점(SD=0.67)이었으며, 중간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자기조절을 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 자신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정도의 평균은 3.72점(SD=0.89)으로 5점 만점 중 중간점수보다 높았으며, 조사대상자가 상호 수용, 가치 체계 공유, 가족 구성원과 원활한 의사소통 및 친밀감을 가진 가족에 속해 있다고 지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족건강성의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적 안정과 협력’의 평균은 3.82점(SD=0.92)으로, 이는 가족 구성원이 가족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같이 노력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호존중과 수용’의 평균은 3.80점(SD=0.96)이었고 보통 수준보다 점수가 높았는데 조사대상자는 전반적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신뢰와 존중을 느끼고, 소속감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탄력성’의 평균은 3.73점(SD=0.96)이었고 중간값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조사대상자의 가족이 어려

〈표 3〉 관련 변인의 전반적 경향성

변인	하위변인	M(SD)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SNS 중독경향성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2.53(0.67)	1.00	4.43	0.23	-0.05
	몰입 및 내성	2.63(0.62)	1.00	4.14	-0.02	-0.14
	부정정서의 회피	2.64(0.66)	1.00	4.00	-0.2	-0.35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2.61(0.62)	1.00	4.00	-0.62	-0.09
	전체	2.60(0.53)	1.00	3.83	-0.35	-0.04
가족건강성	상호존중과 수용	3.80(0.96)	1.00	5.00	-0.51	-0.57
	질적 유대감	3.65(0.98)	1.00	5.00	-0.32	-0.84
	경제적 안정과 협력	3.82(0.92)	1.33	5.00	0.98	-0.32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3.56(0.98)	1.00	5.00	-0.27	-0.78
	가족탄력성	3.73(0.96)	1.00	5.00	-0.34	-0.92
자아탄력성	전체	3.72(0.89)	1.14	5.00	-0.3	-0.89
	통제성	3.52(0.76)	1.44	5.00	-0.18	-0.36
	긍정성	3.51(0.77)	1.00	5.00	-0.18	-0.39
	사회성	3.53(0.72)	1.22	5.00	-0.21	-0.02
	전체	3.52(0.69)	1.63	4.96	-0.17	-0.16

운 상황에 대한 의미를 공유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긍정적 시각으로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질적 유대감’의 평균 3.65점(SD=0.98)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조사대상자는 가족과 함께 활동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친밀감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문화와 사회참여’의 경우에 평균이 3.56점(SD=0.98)으로, 조사대상자의 가족이 가족의 전통과 문화가 있고, 가족 구성원들이 사회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조사 대상이 지각한 자아탄력성 평균은 3.52점(SD=0.69)으로 5점의 중간점수보다 높아서 조사대상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위변인 ‘사회성’의 평균은 3.53점(SD=0.72)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해 주고 공감해 줌으로써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제성’의 평균은 3.52점(SD=0.76)으로 높았는데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긍정성’의 평균은 3.51점(SD=0.77)으로, 이는 조사대상자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스스로 효율적으로 역경을 효율적, 긍정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상관관계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SNS 중독경향성과 정적 상관 변인은 SNS 하루 평균 이용 시간( $r=.22, p<.001$ )이었다. 즉 SNS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SNS 중독경향성과 부적 상관 변인은 가족건강성과 하위변인, 자아탄력성과 하위변인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사대상자의 가족건강성 전체( $r=-.17, p<.01$ ), 가족건강성의 하위변인 상호존중과 수용( $r=-.15, p<.01$ ), 질적 유대감( $r=-.18, p<.01$ ), 경제적 안정과 협력( $r=-.16, p<.01$ ), 가족탄력성( $r=-.18, p<.01$ ), 그리고 자아탄력성전체( $r=-.27, p<.001$ ),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 통제성( $r=-.29, p<.001$ ), 긍정성( $r=-.20, p<.001$ ), 사회성( $r=-.26, p<.001$ )이 SNS 중독경향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가족건강성과 하위변인(상호존중과 수용, 질적 유대감,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탄력성)의 수준이 낮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았으며, 자아탄력성과 하위변인(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의 수준이 낮은 것은 높은 SNS 중독경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표 4)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																			
2	.14**	-																		
3	.01	-.01	-																	
4	-.02	.10	-.07	-																
5	.08	.06	-.17**	.09	-															
6	.04	-.01	-.18**	.02	.82***	-														
7	.00	.09	-.12	.06	.75***	.74***	-													
8	.07	-.02	-.07	.02	.74***	.81***	.75***	-												
9	.06	.04	-.16**	.05	.88***	.89***	.80***	.81***	-											
10	.06	.04	-.16**	.06	.93***	.93***	.86***	.87***	.97***	-										
11	.10	.04	-.06	.06	.47***	.40***	.46***	.40***	.48***	.49***	-									
12	.09	.07	-.09	.11*	.51***	.40***	.48***	.38***	.50***	.50***	.77***	-								
13	.03	.05	-.08	.11*	.40***	.36***	.40***	.31***	.39***	.41***	.76***	.79***	-							
14	.08	.06	-.08	.10	.50***	.42***	.49***	.40***	.50***	.51***	.92***	.93***	.92***	-						
15	-.02	.01	-.07	.24***	-.09	-.16**	-.12*	-.09	-.11*	-.12*	-.20**	-.16**	-.19**	-.20**	-					
16	.02	-.05	-.04	.11*	-.25***	-.25***	-.22**	-.12*	-.28**	-.26**	-.35***	-.24**	-.34***	-.34***	.48***	-				
17	.01	.05	-.08	.25***	.01	.03	.03	.11	.01	.03	-.15**	-.06	-.09	-.11*	.61***	.55***	-			
18	-.04	-.05	-.11*	.16**	-.12*	-.16**	-.16**	-.11*	-.15**	-.15**	-.24***	-.16**	-.20***	-.22***	.68***	.62***	.62***	-		
19	-.01	-.02	-.09	.22***	-.15**	-.18**	-.16**	-.08	-.18**	-.17**	-.29***	-.20**	-.26***	-.27***	.84***	.82***	.81***	.86***	-	

\*  $p < .05$ , \*\*  $p < .01$ , \*\*\*  $p < .001$

주: 1. 연령(20세이하=1, 20세 이상~29세=2, 30세 이상=3) 2. 한국 체류 기간(1년 미만=1, 1년 이상~3년 미만=2, 3년 이상 5년 미만=3, 5년 이상=4) 3. 가족과의 연락빈도(매일=1, 1주 2-3회=2, 1주1회 혹은 그 이하=3) 4. SNS 하루 평균 이용 시간(1시간 미만=1, 1시간 이상~2시간 미만=2, 2시간 이상~3시간 미만=3, 3시간 미만~4시간 이상=4, 4시간 이상=5) 5. 상호존중과 수용 6. 질적 유대감 7. 경제적 안정과 협력 8. 가족 문화와 사회참여 9. 가족탄력성 10. 가족건강성 11. 통제성 12. 긍정성 13. 사회성 14. 자아탄력성 전체 15. 몰입 및 내성 16.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17. 가상세계 지향성 및 수단 18. 부정적서의 회피 19. SNS 중독경향성 전체

### 3. 관련 변인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델 I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투입하였고, 모델 II에서는 가족건강성의 하위변인을 투입하여 이는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모델 III에서는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을 추가해 모든 변인을 투입하여 SNS 중독경향성에 어떠한 변인이 효과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공차는 모두 0.1이상, VIF는 1.01에서 1.36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Durbin-Watson은 2.12로 기준값인 2에 가까워 잔차들 간의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회귀모델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모델 I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 성별, 연령, 학력, 한국 체류 기간, SNS 하루 평균 이용 시간으로 구성되었는데 6.9%의 설명력을 보였다. 모델 II에서는 가족건강성의 하위변인이 추가되자 설명력이 7.5% 증가하여 14.4%가 되었으며, 모델 III에서는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을 투입한 후 모델 II에 비해 7.1% 설명력이 증가하며 21.5%의 설명력을 보였고 세 개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델 III에서 변인들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는 성별( $\beta = -.140, p < .01$ ), 가족과의 연락 빈도( $\beta = -.159, p < .01$ ), SNS 하루 평균 이용 시간( $\beta = .249, p < .001$ )이 SNS 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건강성의 하위변인 질적 유대감( $\beta = -.239, p < .05$ )과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 통제성( $\beta = -.276, p < .01$ )이 SNS 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 집단은 남학생 집단에 비해 더 낮은 SNS 중독경향성을 보였다. 조사대상자가 가족과의 연락 빈도, 가족과의 질적 유대감, 자신의 통제성이 낮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았고, SNS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 통제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크다. 통제성이 낮은 것은 개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객관적으로 평가해 대처방안을 찾아내는 원인분석력이 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통제력과 충동통제력도 낮아지고 SNS 사용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져 SNS 중독경향성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표 5>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N=349)

변인	Model I		Model II		Model III		
	$\beta$	t	$\beta$	t	$\beta$	t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별(남성=0)	-.125	-2.292*	-.148	-2.759**	-.140	-2.708**
	연령	-.007	-.136	-.011	-.213	.002	.040
	학력	.016	.284	.008	.148	.010	.194
	한국 체류 기간	-.047	-.870	-.026	-.484	-.028	-.544
	가족과의 연락빈도	-.101	-1.872	-.166	-3.008**	-.159	-3.078**
	SNS 하루 평균 이용 시간	.230	4.322***	.240	4.639***	.249	4.984***
가족건강성	상호존중과 수용			.015	.139	.056	.513
	질적 유대감			-.236	-1.985*	-.239	-2.046*
	경제적 안정과 협력			-.098	-1.095	-.038	-.438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334	3.476	.333	3.582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209	-1.458	-0.171	-1.214
	통제성					-.276	-3.236**
	긍정성					.149	1.621
	사회성					-.154	-1.759
Constant		2.656		3.176		3.541	
R <sup>2</sup>		.069		.144		.215	
adj. R <sup>2</sup>		.052		.116		.182	
F		4.193***		5.909***		10.085***	

\*  $p < .05$ , \*\*  $p < .01$ , \*\*\*  $p < .001$

#### 4. 가족건강성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가족건강성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Hayes(2013)의 SPSS Process model 4를 활용하였다. 가족건강성을 독립변인으로, SNS 중독경향성을 종속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분석 결과는 <표 6>, <그림 1>와 같다.

첫째, 가족건강성은 SNS 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101, p<.01$ ). 즉, 가족건강성의 수준이 낮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가족건강성은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393, p<.001$ ). 이는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 셋째,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을 함께 투입한 결과, 자아탄력성만 SNS 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B=-.193, p<.001$ ). 즉,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가족건강성의 효과는  $B=-.101 (p<.01)$ 이었으나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이 투입되면서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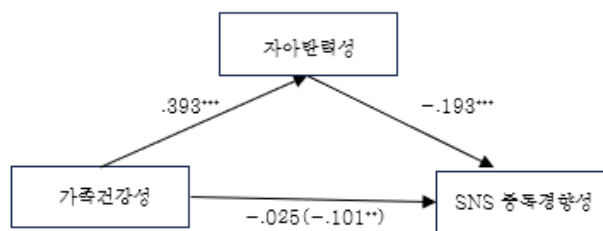
중독경향성에 대한 가족건강성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아 ( $B=-.025, p>.05$ ) 자아탄력성이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건강성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시 간접효과의 편향이 교정된 95%의 신뢰구간을 추정하였고 부트스트래핑 표본은 5000개로 지정해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7>와 같다. 총 효과 ( $B=-.101, CI=[-.163, -.038]$ )와 간접효과 ( $B=-.076, CI=[-.117, -.037]$ )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건강성이 가지는 직접효과 ( $B=-.025, CI=[-.096, .046]$ )는 0을 포함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족건강성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완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가족건강성은 직접적으로 SNS 중독경향성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가족원 개인의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증가하게 되고 SNS 중독경향성이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R2	F
가족건강성	SNS 중독경향성	-.101	.032	-3.166**	.028	10.022**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393	.036	10.915***	.256	119.142***
가족건강성	SNS 중독경향성	-.025	.036	-.690	.075	13.917***
자아탄력성		-.193	.046	-4.164***		

\*  $p<.05$ , \*\*  $p<.01$ , \*\*\*  $p<.001$



<그림 1>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모델

<표 7> 자아탄력성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효과	Effect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총효과	-.101	.032	-.163	-.038
직접효과	-.025	.036	-.096	.046
간접효과	-.076	.020	-.117	-.037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건강성이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국 유학생 349명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관련 변인의 전반적 경향성을 살펴보면, 중국 유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의 수준이 높음을 볼 수 있고 하위변인의 수준도 중간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가족과의 연락 빈도와 이러한 결과를 연결해 보면 조사대상자인 중국 유학생들이 가족들과 서로 존중하고 수용적인 가족분위기였으며, 가족들과 함께 활동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친밀감이 높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구성원이 같이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하위변인의 수준도 중간보다 높다. 이는 중국 유학생들은 변화하는 외부환경 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변인으로 볼 때 본 연구대상자인 중국 유학생들은 유학 생활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SNS 중독경향성 평균 역시 중간이상 값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에 나타난 수치만으로 SNS 중독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SNS 이용시간, 유학생이라는 환경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가 아니라 환경변화나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한 잠재적 SNS 중독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황이 나 환경변화에 자신이 SNS에 과의존하거나 과몰입하지 않도록 하는 자기조절능력과 가족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회귀분석을 통해서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성별, 가족과의 연락 빈도, SNS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중국 유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별에 따라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SNS 중독의 경향성이 더 크다는 것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형수·조우홍, 2009; Durkee et al., 2012)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족 구성원과 더 긍정적인 의사소통, 올바른 문제 해결하는데, 이는 SNS 중독을 예방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Shi et al., 2017; 채莹, 2021).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나오는 가족과의 연락 빈도가 낮으면 개인의 SNS 중독경향성을 높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의 SNS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많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중국 유학생의 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이나 교육적 개입 시 SNS의 사용시간 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 가족과의 연락 빈도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가족 간의 적극적 의사소통을 조성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족건강성의 하위변인 중 질적 유대감과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 중 통제성이 SNS 중독경향성을 예방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사이에 강한 연결감과 감정적 친밀감을 형성하고, 상호 간 이해, 신뢰와 지지하는 질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유학생 자신의 노력과 가족들의 노력이 함께 할 때 유학 생활의 어려움을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아탄력성 중 통제성이 높으면, 즉 중국 유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잘 조절하는 통제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 SNS에 과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가족건강성의 강화는 중국 유학생 개인의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연구결과가 도출된만큼 자아탄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건강성을 높이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 셋째, 매개 분석을 통해 자아탄력성이 가족건강성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중국 유학생의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외부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가족건강성과 같은 지원과 개입을 통해 중국 유학생의 자아탄력성을 향상함으로써 SNS 중독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활기차게 타국생활에 적응하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완전 매개효과를 밝히고 이를 통해 중국 유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을 예방하는 상담 개입 방향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한 중국 유학생들 대상으로 연구할 때 유학 생활의 다양한 특성을 포함하지 못했는데, 이는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국 유학생 유학 생활의 다양한 특성을 포함한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편의표집으로 실시된 결과로 전체 제한 중국 유학생에게 일반화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제한 전체 중국 유학생에게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유학생 집단을 포함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심리적 자원 및 가족 자원을 밝혔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다각적으로 변인을 포함하여 다른 관련변수인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강상휘(2019).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강홍찬(2015). 대학생의 사회건강상태에 따른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고보숙·박정환(2018). 대학생의 부모애착형성과 SNS 중독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5), 236-243.
- 4) 권수경·민윤희·장성화(2015).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학교적응, 가족건강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교육복지, 2(2), 1-14.
- 5) 권여은·이지민(201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의 사소통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2), 17-29.
- 6) 김시연(2020). Zoom을 활용한 중국 대학 온라인 한국어 말하기 교육 사례: 상해 S 대학 한국어과 한국어 말하기 수업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80, 1-29.
- 7) 김영경(2009). 학교상담: 중국, 일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 활 적응을 위한 요구분석. 상담학연구, 10(1), 535-559.
- 8) 김영숙(2017).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김종원·김은정(2019).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4(4), 99-112.
- 10) 김종입(2019).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 자아탄력성, 충동성,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7), 192-202.
- 11) 김주연(2007).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김지현(2015). 20대 소셜네트워크(SNS) 사용자의 가족체계기능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김진아(2018).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SNS 과몰입 경향성의 관계: 타인인정추구의 매개효과.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김진영(2003). 미디어 의존 이론 연구: 미국 유학생들의 인터넷 이용, 민족 정체성, 미디어 의존적, 그리고 인지적, 행동적 변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3(2), 119-154.
- 15) 김형수·조우홍(2009).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연구, 1(23), 61-90.
- 16) 남현지(2022). 대학생의 아동기 대인 외상 경험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7) 마언타오(2021). 재한 중국 유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게임 중독 경향성 및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민수인(2022). 병리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박민정(2016).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대구 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박순아·박근우(2017). 가족기능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4), 325-333.
- 21) 박순영(2013).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2) 박아름(2022).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회복탄력성이 COVID-19로 인한 생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3) 박애경(2017). 가족건강성, 사회적지지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인터넷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4) 박웅기(2013). 청소년의 SNS 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13(4), 305-342.
- 25) 박재진·황성욱·박홍원(2013). 페이스북 커뮤니케이션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 사회과학연구, 39(2), 93-109.
- 26) 박정애(2015). 빈곤아동과 일반아동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7) 박정혜(2020).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위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8) 배찬욱(2020).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9) 서효봉·서창갑(2011). 중국인 유학생들의 SNS 활용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4(2), 1149-1167.
- 30) 성미화(2017).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적응유연성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1) 성요안나·현명호(2016). 대학생의 SNS 이용 동기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24(4), 257-263.
- 32) 신가영(2019). 대학생의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3) 신영아(2019).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4) 신우열·김민규·김주환(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 35) 안중근(2021).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영향요인 구조모

- 형.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6) 오원옥 · 신현정(2016). 대학생의 우울,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가 인터넷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 *韓國保健看護學會誌*, 30(1), 56-69.
- 37) 오윤경(2012). SNS 중독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 지지의 관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8) 왕매 · 나미수(2015).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8(1), 77-98.
- 39) 우공선(2011).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Mobile Social Network Service)의 이용증추과 중독 연구: 트위터(Twitter)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0) 유영주(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0), 119-151.
- 41) 윤지영(2016).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및 자아탄력성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2) 이승화 · 장여옥(2021).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2(2), 1667-1680.
- 43) 이하정(2020).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언어문화 교육 방안: 현지 베트남 학습자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4) 임채식(2017).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탄력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17(1), 191-197.
- 45) 장문광(2013). 중국 유학생들의 SNS의 이용 행태가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6) 장민위(2015). 중국 유학생들의 SNS이용과 문화적응 유형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7) 장성연(2013).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에서 가족건강성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圓光大學校 박사학위논문*.
- 48) 장성화 · 박영진(2013). 초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7), 463-472.
- 49) 전준희(2023).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과 우울의 관계.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0)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2). 세대별 SNS 이용 현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51) 정소영(2014).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2) 정수연(2014). 남 · 여 중학생의 자기통제력과 가족건강성이 인터넷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3) 정승록(2020). 제주지역 대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4) 정지은(2017).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자기효능감이 중독경향 SNS 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5) 조선숙(2020). 공적자의식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Fear of Missing Out: FoMO)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6) 조윤미(2013). 주의집중성 기질,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지지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7) 조혁수 · 전경태(2009).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20(3), 193-223.
- 58) 주애자 · 황혜원(2019).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인터넷중독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와 또래 · 교사관계의 매개효과. *人間發達研究*, 26(1), 49-67.
- 59) 주학(2022).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0) 차소연(2023). 대학생의 정서적 요인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1) 최아랑 · 김용범 · 김영호(2019). 성인애착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독과 복지*, 3(1), 25-45.
- 62) 한국교육개발원(2022). 2022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한국교육개발원*.
- 6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64) 한미경(2023). 대학생의 이동기 트라우마 경험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5) 현대자(2022). 남녀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6) 홍구표 · 전혜성(2017).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保健社會研究*, 37(1), 34-67.
- 67) 홍신영(2015). 대학생의 SNS 이용특성과 자아정체감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8) 홍희정(2017).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9) 황유나(2020).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0) 황윤지 · 조수현(2020). 선택의 종류가 선택 후 선호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32(2), 189-195.
- 71) 황혜지(2017).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2) Jin Ailing · 오인수(2017).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별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8(4), 209-224.
- 73) Andreassen, C. S., Torsheim, T., Brunborg, G. S. & Pallesen, S.(2012). Development of a facebook addiction scale.

- Psychological Reports, 110(2), 501-517.
- 74)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 75) Durkee, T., Kaess, M., Carli, V., Parzer, P., Wasserman, C., Floderus, B., ... & Wasserman, D. (2012). Prevalence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among adolescents in Europe: demographic and social factors. *Addiction*, 107(12), 2210-2222.
- 76) Forbush, E. & Foucault-Welles, B. (2016). Social media use and adaptation among Chinese students beginning to study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50, 1-12.
- 77)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78) He & Q.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nd social media. In 2022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ntal Health,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318-322.
- 79) Hjemdal, O., Vogel, P. A., Solem, S., Hagen, K. & Stiles, T. C.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levels of anxiety, depression, and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in adolescent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8(4), 314-321.
- 80) Kirschner, P. A. & Karpinski, A. C. (2010). Facebook® and academic performanc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6), 1237-1245.
- 81) Kuss, D. J. & Griffiths, M. D. (2011).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8(9), 3528-3552.
- 82) Li, X., Shi, M., Wang, Z., Shi, K., Yang, R. & Yang, C. (2010). Resilience as a predictor of internet addiction: The mediation effects of perceived class climate and alienation. In 2010 IEEE 2nd Symposium on Web Society, 66-70.
- 83) Lim, C. S. (2017). Effect of pre-early childhood teachers' self-efficacy and ego resiliency on sns addiction tendency.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17(1), 191-197.
- 84) Marzilli, E., Cerniglia, L., Ballarotto, G. & Cimino, S. (2020). Internet addiction among young adult university students: The complex interplay between family functioning, impulsivity, depression, and anx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21), 8231. DOI: 10.3390/ijerph17218231.
- 85) Putri, A. A. H. & Khairunnisa, H. (2019). The relationship of family function and social media addiction among adolescents. In 4th ASEAN Conference on Psychology, Counselling, and Humanities (ACPCH 2018), 127-130.
- 86) Robertson, T. W., Yan, Z. & Rapoza, K. A. (2018). Is resilience a protective factor of internet addic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8, 255-260.
- 87) Schou Andreassen, C. & Pallesen, S. (2014). Social network site addiction—an overview. *Current Pharmaceutical Design*, 20(25), 4053-4061.
- 88) Shi, X., Wang, J. & Zou, H. (2017). Family functioning and internet addict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s of self-esteem and lonelines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6, 201-210.
- 89) Stavrova, O. & Denissen, J. (2021). Does using social media jeopardize well-being? The importance of separating within-from between-person effect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2(6), 964-973.
- 90) Wang, J. L., Jackson, L. A., Gaskin, J. & Wang, H. Z. (2014). The effects of social networking site (sns) use on college students' friendship and well-be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7, 229-236.
- 91) Wisniewski, P., Jia, H., Wang, N., Zheng, S., Xu, H., Rosson, M. B. & Carroll, J. M. (2015). Resilience mitigates the negative effects of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and online risk exposure. In Proceedings of the 33rd Annual ACM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4029-4038.
- 92) 刘莹(2021). 家庭功能对青少年社交媒体成瘾的影响: 社交焦虑与心理韧性的链式中介作用 湖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투 고 일 : 2023년 08월 24일  
■ 심 사 일 : 2023년 10월 11일  
■ 계 재 확 정 일 : 2023년 11월 10일